

한국전쟁을 통한 국민화에 대한 거부와 국가외부로의 지향

류희식*

|| 차례 ||

- I. 서론
- II. 토끼 이야기와 동물들의 보편적 예속
- III. 한국 전쟁과 공포에 의한 인민의 국민화/예속화
- IV. 국민화/예속화에 대한 거부와 누헤의 자살
- V. 국가외부로의 지향과 탈주의 모호성
- VI. 결론을 대신하며

【국문초록】

본 논문은 장용학의 『요한시집』에 나타난 국민화에 대한 거부와 국가외부로의 지향을 살펴본 것이다. 이 작품에 의하면, 남북한의 인민들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국민화’되었으며 그 방식은 공포에 의한 예속이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 국민을 포획하고 예속시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용학은 남한 전체를 또 다른 포로수용소로 본다. 이 작품에서 거제도포로수용소는 단순히 전쟁에서 잡힌 포로들을 감금하는 예외적인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포로수용소는 전쟁을 통한 인민의 포획과 예속이라는 근대국가의 일반적인 작동방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배치이다. 근대국가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 국가의 전쟁이 지속되는 한 모든 인민들은 언제나 포로인 것이다.

『요한시집』에서 주인공 누헤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수용소의 철조망에서 자살을 한다. 누헤의 죽음을 통해 동호는 수용소의 바깥, ‘국가 외부’가 잠재적으로 실재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동호는 국가의 바깥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장용학의 문학적 지향이 근대 제도의 하나인 민족/국민국가를 벗어나는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요한詩集, 장용학, 포로수용소, 반국민화, 반국가주의, 국가외부

I. 서론

한국전쟁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으며, 참혹함에 있어서도 세계 전쟁사에서 보기 드문 것이었다.

한국전쟁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은 ‘6·25’이다. 이 명칭은 전쟁을 물리적으로 먼저 일으킨 쪽, 최초 공격을 감행한 것이 누구인가를 중요시한다. 이는 전쟁의 ‘발발’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1950년 6월 25일 이전과 이후 사이에 인식적 단절을 불러일으키며, 그 결과 ‘정상적’이었던 남한의 일상이 북한의 ‘남침’ 때문에 파탄을 맞은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이에 따를 때, 북한이 불법 남침을 했기 때문에 평화로웠던 남한 사회가 전쟁의 참화에 휩쓸리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국가주의적 서사가 가능해진다.¹⁾ 이는 북한에게 전쟁의 책임을 전가함과 동시에 남한은 그 피해자라는 손쉬운 ‘알리바이’를 만들어낸다. 아울러 지금까지 한국전쟁을 이해하는 공식적인 시각이 ‘반공주의’라는 사실은 전쟁표상 자체가 국가의 것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쟁 표상은 국가장치에 의해 사후적으로 구축된 것에 불과하다. 휴전 이후 국가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전쟁에 대한 모든 서술

1)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pp.19-21 참조.

은 탄압을 받았으며, 개인들이 지닌 기억들은 발화되지 못한 채 억압되어야 했다.²⁾ 게다가 남한 역시도 전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데, 이승만은 이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진통일’을 누구보다 소리 높여 주장해왔기 때문이다.³⁾ 남북한의 실질적 관계는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만성적 ‘준 전쟁 상태’에 처해 있었다.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북한을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남한은 악을 소탕하고 정의를 수호했다는 정당성을 얻게 된다.

북한 역시 남한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남북한은 쌍생아적 관계이다. 한국전쟁은 이승만 정권의 입장에서는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통일된 민족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 제국주의의 신식민지인 남한을 해방하는 것으로 표상된다.⁵⁾ 한국전쟁은 공히 ‘민족해방’ 혹은 ‘민족통일’이라는 명분의 근대 민족/국민국가nation-state 건설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이념과 무관하게, 민족/국민국가의 건설은 남북한 모두의 욕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장용학은 『요한시집』에서 거제도포로수용소를 통해 전쟁의 형상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는 전쟁을 형상화한 여타의 작가들과는 다른 인식을 보여준다. 『요한시집』은 기존의 일반적 평가처럼 관념적인 것도, “서구와의

2) 한국전쟁에 대한 국가주의적 시선을 비판하는 논의들은 상당히 일반화되었다. 전쟁 중 국군이나 유엔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과, 이와 연관된 직간접적 피해자들이 휴전 후에 또다시 국가에 의해 당한 제2, 3의 피해를 미시정치적으로 살핀 것에는 김동춘의 위의 책, 4장, 구술을 통해 개인들의 전쟁 기억을 살펴본 것으로는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돌베개, 2010. 참조.

3) 강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1권』, 인물과 사상사, 2009, pp.25-26.

4) 1948년 남북한이 각각 단독 국가를 수립, 선포하고 난 이후에도, 남한의 경우 정권의 국가 장악력은 실로 미비했으며, 제주도 4·3항쟁, 여순 군반란 사건 등이 일어나는 극심한 내전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강준만, 위의 책, pp.215-218 참조.

5) 김동춘, 앞의 책, pp.135-136 참조.

거리가 무화”⁶⁾된 ‘서구추수적’인 것도 아니다. 그는 한국전쟁을 “世界史의 二大潮流가 부딪친 戰爭”⁷⁾으로, 그리고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世界史의 二大潮流가 맞부딪친 二十世紀의 도가니”⁸⁾로 인식한다. 한국전쟁을 근대 국민국가체제의 두 축(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이 벌인 모순의 극한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전쟁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단순히 국가나 민족 등 근대적인 인식틀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의 시선은 이미 근대적 가치를 벗어나 있으며, 제도적 근대인 민족/국민국가를 부정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글을 통해 한국전쟁을 그린 그의 소설 중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요한시집』에서 국민화에 대한 부정과 국가를 벗어나려는 실험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가를 살펴보자. 이는 한국전쟁을 형상화한 그의 다른 작품들을⁹⁾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아울러 우리 소설사에서 한국전쟁과 근대 민족/국민국가를 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6)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p.210, p.230. 장용학의 소설을 관념적인 것으로 보거나 보편적 서구추수주의로 읽는 것은 그의 작품을 재현의 관점에서 읽는 한계 때문이다.

7) 장용학, 「감상적 발언」, 『문학예술』, 1956.9, p.174.

8) 장용학, 「實存과 『요한詩集』」, 『세계전후문학전집 1』, 신구문화사, 1969, p.401.

9) 장용학의 작품 중 전쟁을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는 「찢어진 윤리학의 근본문제」(『문예』, 1953. 6), 「요한시집(詩集)」(『현대문학』, 1955. 7), 「현대의 야」(『사상계』, 1960. 3), 「원형의 전설」(『사상계』, 1962. 3. ~ 11)이 있다. 본고에서는 『요한시집』으로 논의의 대상을 한정한다.

II. 토끼 이야기와 동물들의 보편적 예속

『요한시집』은 일반적인 근대 소설이 보여주는 사건의 유기적 완결성에서 벗어나 있다. 특히 동호는 주인공이자 서술자임에도 불구하고¹⁰⁾, 사건의 중심에 놓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누혜야 말로 ‘유서’의 내용을 통해 전체적인 삶의 궤적이 드러나고, 비극적 자살을 행함으로써 『요한시집』의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상의 이질성과 애매함은 작가가 밝힌 『요한시집』의 창작 및 발표 과정에서 겪은 우여곡절 때문이다. 이 작품은 미완으로, “月曜日부터 日曜日까지 七日間に 일어나는 일을 七章으로 나누어 七・八百枚 정도의 長篇을 쓸”¹¹⁾ 계획이 사산되어 서장(序章)만을 수습하여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을 읽는 방법은 두 가지가 가능할 것이다. 하나는 작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발표된 작품 그 자체를 읽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작가의 발언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관점에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다.

토끼 이야기는 발표된 작품의 서두에 해당하며, 실질적인 서사의 이해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기에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다. 대표적으로 염무웅은 토끼 이야기가 본 서사와 유비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는 굴에서 나온 토끼의 죽음과, 그 후 토끼의 무덤에 ‘자유의 버섯’이 자란 것에 대해 ‘자유의 묘비’라고 말한 후, “요한의인 것(자유)이 죽은 뒤에 오는 메시아의인 것을 위한 待期所の 標識”¹²⁾라고 언급한다. 다시 말

10) 장용학은 “『요한詩集』의 主人公은 『동호』이다. 序章에서 그쳤으니 『누혜』가 주인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누혜』는 『요한의』인 존재이고 『요한詩集』은 『동호』가 자유의 屍體 속에서 孵化되어 誕生하는 過程을 그리려고 한 것이다. 自由라는 壁은 무너지고 『동호』는 誕生했다. 그러나 내일 아침 해는 南에서 떠오를지 西에서 떠오를지 아직은 모를 것으로 끝난다”고 말하고 있다. 장용학, 위의 글, p.402.

11) 장용학, 위의 글, p.401.

해 그는 토끼의 죽음을 바로 자유의 죽음이자 ‘다음에 올 것’을 예감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소설의 본 서사는 토끼 이야기를 형상화한 것이며, 누해의 죽음은 토끼의 죽음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된다.¹³⁾

이에 비해 김윤식은 토끼 이야기를 우화라고 규정한 후, 우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요한시집』이 실패했다고 본다. 토끼 이야기는 철학적 소양이 부족한 일개 식민지 지식인이 만든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깊이 있는 사상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⁴⁾ 김동석은 『요한시집』의 토끼 이야기를 우화로 규정한 김윤식의 논의가 확장되어 ‘알레고리론’으로 나아갔다고 보면서¹⁵⁾, 알레고리론적 접근이 그의 소설에 대한 선명한 해석의 단초를 제공한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접근이 소설의 복잡한 의미망을 제한하고 배제함으로써 결국 장용학 소설을 “주관적 자의식과 관념에 의한 추상적 역사의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기존의 부정적 평가를 더욱 공고히”¹⁶⁾할 뿐이라고 비판한다.

12) 염무웅은 토끼 이야기를 ‘토끼우화’로 명명하면서, 이것이 『요한시집』의 제목과 관련하여 요한이 죽은 다음 도래할 메시아를 위한 표지’라고 말한다. 이러한 해석은 당대 실존주의의 이념적 세례 하에서, 그리고 샤르트르의 『구토』의 영향을 지나치게 염두에 두면서 ‘실존주의적 해석’으로 진행된 때문이다. 염무웅, 『실존과 자유』, 『현대한국문학전집4』, 신구문화사, 1965, p.429.

13) 염무웅, 위의 글, p.432.

14) 물론 김윤식은 실패를 단언하지는 않는다. 그의 논의의 초점은 소설의 형식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특유의 모호한 수사로 ‘실패하기 쉬운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종래에는 이 우화가 소설의 성격을 무너뜨리는데 기여했다고 서술한다. 김윤식, 『우화성과 이데올로기 비판』, 『문예중앙』, 1981. 봄(여기서는 『장용학전집7』, 국학자료원, 2002, pp.72-73 참고).

15) 김동석, 『경계의 와해와 분열 의식』, 『어문논집 47권』, 민족어문학회 편, 2003. 그는 장용학의 소설을 알레고리로 보는 대표적인 연구로 방민호(『알레고리적 상상력의 의미』, 『한국소설문학대계29』, 동아출판사, 1995)와 서영채(『알레고리와 계몽』, 『소설의 운명』, 문학동네, 1996)를 든다.

그렇다면 『요한시집』의 토끼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평생 동안 동굴에서 살아온 토끼는 “마음이 내면으로 도리켜진” “사춘기(思春期)”¹⁷⁾를 맞이한다. 토끼는 생일날 자신이 처음부터 동굴에서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불현듯 하게 되고, 동굴로 빛이 흘러들듯이 그 자신도 외부에서 왔을 것이라는 자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구멍을 발견하고, 그 구멍을 막았을 때 동굴 전체가 암흑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경험한다. 이 경험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인데, 이를 통해 그 동안 일곱 가지 무지개로 가득 찬 “꽃 같은 집”이던 동굴이 “감옥”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끼의 자각은 스스로가 감옥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획득하는 사건이다.

머칠을 두려움에 떨던 토끼는 빛이 들어오는 그 구멍이 외부로 나가는 출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가게 된다. 사력을 다해 기어가던 토끼는 가까워지는 외부의 소리와 향기를 느끼면서 바깥세상을 볼 수 있다는 기대로 가득 찬다. 하지만 정작 밖으로 나온 순간 토끼는 밖의 강렬한 태양빛에 의해 시력을 잃고 만다.

그 토끼는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향에 돌아가

16) 김동석, 위의 글, pp.200-201. 이에 덧붙이자면, 알레고리적 이해는 장용학의 소설이 현실을 구체적으로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장용학은 문학이 단순히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완고하게 고수했다. 문학이 현실을 재현하기 보다는 현실을 실험하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그의 소설은 현실의 잠재태들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이는 단순히 재현을 통한 현실모사, 더 나아가 현실비판이 아니라, 현실의 또 다른 출구를 만드는 것이자 ‘비판’을 넘어서는 것이다.

17) 장용학, 『요한시집(詩集)』, 『현대문학』, 1955.7, p.50. 작품의 인용은 『사상계』 판본을 중심으로 하되, 발표 당시의 오식 등을 감안하여 작품 이해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신구문화사 판(1965)도 함께 참조하도록 하겠다.

는 길이 되는 그 문을 그러다가 영영 잃어버릴 것만 같아서였습니다. 고향에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거죽에 나타내본 적이 한번 없으면서 말입니다.

그가 죽은 그 자리에 버섯이 하나 났는데 그의 후예(後裔)들은 무슨 까닭으로인지 그것을 『自由의 버섯』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버섯 앞에 가서 제사를 올렸습니다. 토끼뿐 아니라 나중에는 다람쥐라든지 노루 여우 심지어는 곰 호랑이 같은 것들도 덩다라 그 앞에 가서 절을 했다고 합니다. 효험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니 제사를 드리나 마나였지만, 하여간 그 버섯 앞에 가서 절을 한번 꾸벅 하면 그것만으로 마음이 후련해지더라는 것입니다.¹⁸⁾

이상의 토끼 이야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¹⁹⁾ 첫째는 자의식이 없던 토끼가 동굴에 갇힌 자신의 처지와 동굴의 바깥을 자각한 후 죽음을 무릅쓰고 동굴 밖으로 나왔다는 점이다. 토끼는 자명한 것이자 유토피아로 여기던 동굴생활이 바로 수감생활이었으며, 행복을 만끽하던 자신이 사실은 수감자였음을 깨닫고 감옥을 벗어난 것이다. 동굴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빛(허용된 가시성)과 허용/금지된 움직임을 내포한다. 이는 신이나 왕과 같은 초월적 존재에 의해 인간의 삶이 예속되고,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역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동굴을 벗어나는 것은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토끼의 죽음과 그 이후의 사태들이다. 토끼는 시력을 잃어버림으로써 자신의 ‘고향’이었던 ‘감옥’, 즉 동굴 앞을 떠나지 못하고 죽는다. 토끼는 감옥을 탈출하자마자 불구가 됨으로써 거꾸로 ‘고향/감옥’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한다. 토끼는 바깥에 나왔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힌 역설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 후 토끼가 죽은 자리에 버섯

18) 장용학, 위의 글, p.53.

19) 본고와 관점을 달리 하지만, 앞의 김동석도 이 두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이 생겨나고, 다른 동물들은 이 버섯을 “자유의 버섯”으로 부르며 경배한다. 결국 토끼 이야기의 결말은 감옥 바깥에 나와서 감옥에 구속된 불구의 토끼와, 감옥 밖에 살고 있는 다른 모든 동물들이 ‘불구가 된 토끼’의 예측적 삶에 자발적으로 예측되는 기이한 모습으로 끝난다. 이 자발적 예측을 통해서 다른 모든 동물들은 ‘자신들이 이미 감옥 외부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자기 신체의 능동성’ 자체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는 “효험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러니 제사를 드리나 마나 였지만, 하여간 그 버섯 앞에 가서 절을 한번 꾸벅 하면 그것만으로 마음이 후련해지더라”는 서술에서처럼, 동물들이 행하는 경배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는 ‘경배’란 말 그대로 신체를 구부리는 행위, 신체 능력의 예측이기 때문이다.

결국 토끼 이야기는 근대의 인간에 대한 유비적 제시이다. 근대인은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자신’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체의 능력을 긍정하고 실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여전히 또 다른 초월적인 것에 스스로를 예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Ⅲ. 한국 전쟁과 공포에 의한 인민의 국민화/예속화

『요한시집』의 본 서사(상, 중, 하)는 동호의 시선에서 펼쳐진다. 작품의 주된 내용은 포로수용소에서 누해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사건과 그의 유서, 동호가 수용소를 벗어나서 경험한 누해의 어머니의 죽음 등이다.²⁰⁾ 그런데

20) 작품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호는 북한군들에 의해 강제로 의용군으로 끌려가서 전쟁에 참가하고, 그 후 포로가 되어 거제도포로수용소에 수용된다. 거기서 그는 인민군 영웅인 누해와 만나게 된다. 누해는 인민군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소

거제도 포로수용소를 배경으로 북한군, 소위 ‘친공포로’들의 폭력에 의해 누혜가 죽는 모습은 자칫 이 작품을 단순히 ‘반공주의’로 읽히게 할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전후의 상황이 남북한의 이념적 현실에 대한 ‘균형있는 비판’이나 ‘거리두기’를 용인하지 않았음을 상기할 때, 작품에서 지워져 있는 역사의 또 다른 측면, 즉 친공포로들에 대한 남한의 폭력을 복원해 보는 것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국전쟁은 내전(civil war)이면서 동시에 국제전이기도 했다.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국제법상 전쟁의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군사작전의 주도권을 쥔 미국은 그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미국과 유엔국들은 스스로는 국제법적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했음에도, 북한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전쟁을 수행하면서 자본진영은 ‘적군’을 포획하여 포로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포획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사람’을 포획한 후, 포획된 사람을 ‘포로’로 규정했다.²¹⁾ 이 과정에서 수용소에는 인민군을 비롯하여 남한 출신의 의용군, 심지어 민간인까지 포로로 수용된다.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진 1951년 중순부터 시작된 휴전협정은 1953년 7

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대부분 고독한 일상을 보낸다. 그는 유일하게 동호를 인간적으로 대우해준다. 동호는 자신을 비웃지 않는 누혜와 친하게 지낸다. 그 사이 인민군 포로들은 수용소 내부에서 더욱 더 공산주의 이념과 국가주의에 빠져들고, 누혜에게도 자신들과 동침할 것을 강요한다. 누혜가 이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들은 그를 폭행하고 누혜는 아무런 저항없이 고스란히 폭행을 감당한다. 폭행을 당한 며칠 후 누혜는 자살한다. 그리고 동호는 나중에 누혜가 남긴 수기를 보고 그가 자살한 이유를 알게 된다. 수용소를 나온 동호는 누혜의 어머니를 찾아 간다. 거기서 동호는 누혜의 어머니가 고양이에게 물려다 주는 쥐를 먹으려는 것을 보고 경악한다. 그는 누혜의 어머니가 쥐를 먹으면서 연명한 것을 알고 쥐를 먹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굶주림이 극에 달한 누혜의 어머니는 아사(餓死)한다. 동호는 누혜의 집을 나와서 새로운 삶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내적인 고민에 빠진다.

21) 김학재, 『진압과 석방의 정치』, 『제노사이드 연구』 제5호,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편, 2009, pp.55-58.

월 27일 조인식이 끝날 때까지 거의 20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진행된 포로송환협정에서는 포로 송환 방식이 문제가 되었다.²²⁾ 수용소의 포로들은 미국이 임의적으로 설정한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었다. 게다가 ‘인도주의적 원칙’을 내세운 미국이 ‘즉각적 본국송환’ 원칙을 무시하고 ‘자유송환’ 원칙을 주장함으로써 포로교환 협정은 난항에 빠진다. 자본진영에서 볼 때, 수용소의 포로들 가운데는 상당수 남한 출신의 민간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들을 선별해야 했다. 그런데 미국은 ‘자유송환’ 원칙을 내세움으로써 새로운 해계모니 국가로서 체제 우월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했으며, 남한은 많은 인구와 영토를 획득하려는 영토주의적 권력팽창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따라서 김학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거제도포로수용소는 전쟁이라는 예외상태가 만들어낸 하나의 ‘예외공간’이 되었다.²³⁾

포로 심사 과정은 단순히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라기보다는 수용당국의 포획/포섭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휴전협정이 진행되는 동안 포로들을 포섭하기 위하여 수용소 내부에 공작원과 프락치를 조직적으로 파견했다. 그 후 이승만 정권은 포로들을 반공포로와 친공포로로 나누고, 반공포로로 ‘포로경찰대’를 조직하여 수용소 내의 살인과 폭행 등의 테러를 감행했다.²⁴⁾ 따라서 협정체결 기간 동안 포로들은 자본 진영의 이념에 근거한 선별과 배제라는 무한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포로들은 국제법인 제네바협약에도 배제되면서 오직 포획자

22)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pp.182-189.

23) 김학재, 앞의 글, pp.58-64.

24) 전갑생, 『최초 발굴: 거제도포로수용소의 숨겨진 진실』, 『민족21』 제108권, (주)민족 21 편, 2010, pp.161-166. 이 글에는 거제도포로수용소에서 벌어진 ‘반공포로 생산’을 위한 국가적 기획, 북한 포로들의 폭력성에 대한 허구적 조작, 반공포로들을 최종적으로 군사기계로 이용할 계획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의 임의에 내맡겨진, 말 그대로 ‘호모사케르’였다.²⁵⁾ 그들은 자본진영의 법-폭력에 의해 ‘잠재적으로 살해될 수 있는 가능성’ 속에 놓인 것이다.

‘포로수용소’는 전쟁과 구분되는 공간으로 표상되지만, 전쟁에 포함된 예외적 정치공간이다. 따라서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공식을 ‘정치는 전쟁의 연속’으로 뒤집은 푸코의 말을 수용한다면²⁶⁾, 전쟁과 정치는 원환을 이루게 된다. 국가의 입장에서 정치와 전쟁은 항상 상호 전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포로수용소는 단순히 전쟁 상태에서에서만 만들어진 특이한 공간이거나, 전쟁 바깥의 공간이 아니다. 오히려 수용소는 전쟁에서 배제됨으로써 전쟁에 포획된 ‘예외공간’이다. 그러므로 포로수용소야말로 전쟁과 공존하는 국민국가의 배치 자체를 보여주는 곳이다. 더욱이 휴전과 함께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조건에서 볼 때, 포로수용소야말로 남북한이라는 근대국민국가의 창출과 그 작동방식을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공간이다. 왜냐하면, 포로들이 적국(남한)이 강요하는 예속을 벗어나더라도, 그 벗어나는 행위가 국가장치의 외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고 있는 북한의 국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흔히 전쟁은 외부의 적이 공동체를 위협할 때, 국가장치가 인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도모하고 적을 물리치기 위해 행사하는 폭력으로 이해된다. 국가는 인민의 삶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저지하기 위해 인민들 사이의 계약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이다.²⁷⁾

25) 호모사케르는 ‘예외상태’ 선포에 의한 주권권력의 지배형식에 포획된 자들을 일컫는 말로, “그것은(사케르-인용자) 오히려 절대적인 살해 가능성에 노출된 생명, 법과 희생 제의의 영역 모두를 초월하는 어떤 폭력의 대상을 가리킨다.”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p.181.

26) 미셸 푸코, 박정자 역,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동문선, 1998, p.34.

27) 이러한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로크의 국가론일 것이다. 로크에 따르면 만인이 소유권의 주장을 통해 전쟁상태로 돌입하며(pp.24-25), 이를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이에 따를 때, 공동체를 위협하는 전쟁을 저지하는 거대 장치인 국가의 등장은 인류의 역사적 진보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표상된다. 하지만 이는 국가의 관점에 불과하다. 한국전쟁이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치른 정당한 방어전이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가 만인의 동의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사실이라면, 예외상태인 전쟁이 발발할 때 모든 인민은 자신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요한시집』에서 드러나는 양상은 이와 전혀 다르다. 특히 포로, 국민과 국가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의 실상은 이와는 너무나 판이하다.

이 땅이 『民主堡壘』니 『두개의 世界』니 『萬國平和아필運動』이니 하는 때 위의 『레알리즘』이 네이팜彈의 세계와 함께 쏟아져 들어왔을 때, 농부의 옷을 채 벗지 못했던 그 시골내기들은 살이 찢어지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어안이 병병해했다. 언제 都會人으로 출세한 것 같기도 하고 꼭두각시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최면술에 걸린 것 같았다. <…>

그러던 그들은 마치 좀도적이 까막소살이를 하는 사이에 소도적이 되어가는 투로, 포로생활을 하는 사이에 뼈마디가 굼어져서 『제네바協定』이니 『人道的待遇』니 하고 도사릴 줄 알게 되었다.

『내 살이 뜯겨나가고 내 피가 흘러내린 이 전쟁은 과연 내 전쟁이었는가?』

한편에서 世界의 孤兒가 된 포로병들의 가슴속을 이렇게 거래하던 회의는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고 하다가 마침내 生에 대한 애착에 부딪혔다. 한 개의 나사못으로 밖에 취급을 받지 못했던 자기의 삶에 대한 애착이었다. 살아야 하겠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남을 죽이기 시작했다. 싸움은 다시 일어났다. 남을 죽여야 내가 살 것 같았다. 남해의 고도에는 붉은 기와 푸른 기가 다시 바닷바람에 맞서서 휘날리게 되었다. 살기 위하여 그들은 두

함께 공동체(국가-인용자)를 결성하기로 합의”(p.93)한다는 것이다. 존 로크, 강정인, 문지영 역, 『통치론』, 까치, 1996.

깃발 밑에 갈려 서서 피투성이의 몸부림을 쳤다. 철조망 안에서의 이 두 번째 전쟁은 완전히 자기의 전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생존의 권리를 포기하는거나 마찬가지였다.²⁸⁾

동호의 진술에 따르면 포로가 되기 전 북한인민들은 국민이라는 인식조차 없던 ‘농부들’이자 ‘시골내기’에 불과했다. 그들은 전쟁에 동원되어 “살이 찢어지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도 이유도 모른 채, 그저 “어안이 병병해” 할 뿐이었다. 그들은 전쟁에 ‘끌려와’ 군인이 되었지만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할 국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식민지 ‘백성’이었다. 이들은 ‘국민’이기에 자발적으로 참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쟁수행에 동원되어 소모품들이자 “나사못”이 된 것이다. 이것은 해방과 정권수립 이후에도 이들이 ‘국민’이 아닌 단순한 ‘백성’, 지배 권력에 예속된 자들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²⁹⁾ 남북 양측의 정부 수립은 폭력으로 조선을 장악했던 ‘일제’가 물러간 자리를 지배적 ‘다수’가 장악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모든 개인들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했다는 흔한 수사는 국가의 표상일 뿐이다. 더 나아가 개인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자기 권리의 양도에 의해서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자유주의적 근대국가 기원론은 한낱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포로들은 수용소에서 가해지는 폭력 속에서 비로소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된다. 이들이 남한 및 자본주의 국가들의 폭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자신들의 신념을 버리고 그들의 회유에 굴복하거나, 반대로 그들의 폭력에 대항하여 북한의 국민이라는 이념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법 밖에 없었다.³⁰⁾ 이는 결국 잠재적으로 ‘국민’이 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

28) 장용학, 『요한시집』, pp.70-71.

29) 김동춘, 앞의 책, p.85.

해 볼 때 근대국가는 합의가 아니라 폭력을 통해, 전쟁을 경유하면서 완성된 것이다. 국민국가는 인민의 평화를 위해 전쟁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을 죽음으로써, 그리고 전쟁의 공포를 통해 인민들을 예속시킴으로써 형성되었다.³¹⁾

포로들은 국가장치에 예속/주체화됨으로써 국가전쟁의 부품이자 수단이 된다. 그 후에야 비로소 전쟁은 국민화된 자신의 생존을 위한 ‘완전한 자기의 전쟁’이 된다. 국가의 입장에서 ‘인간’은 오직 국가장치에 예속된 자들이며, 그 외에는 소멸시켜야 할 ‘적’이다. “시체에서 팔 다리를 뜯어내고 눈을 뽑고, 귀 코를 도리어내”는 신체훼손은 ‘국가인’이자 전쟁 수단이 되어 “思想의 이름으로, 階級의 이름으로, 人民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인간의 신체에 가해지는 “人界의 限界”(71면)를 넘어선 무한 폭력이다. 그래서 포로수용소는 또다시 “붉은 기와 푸른 기가 다시 바닷바람에 맞서서 휘날리게”되고, “살기 위하여 그들은 두 깃발 밑에 갈려 서서 피투성이의 몸부림”을 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평화를 위하여 전쟁을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결과물로 탄생함과 동시에 전쟁을 독점한다.³²⁾ 국

30) 사실 북한 국민임을 드러내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의 여부는 미군과 유엔군의 임의적 처분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본진영의 폭력에 폭력으로 맞섬으로써 국제적인 여론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과, 이를 통해 정전협상의 북한측 대표들이 자본진영에 대한 적극적인 비난을 이끌어내는 방법뿐이었다. 유엔군측에 수용된 포로들의 저항에 관해서는 김학재, 『전쟁포로들의 저항과 반공오리엔탈리즘』, 『사람』 제36호, 수선사학회 편, 2010, pp.158-171 참조

31) 홉스는 국가를 ‘획득국가’나 ‘설립국가’로 나누어 설명한다. 전자는 전쟁으로 적을 정복함으로써 형성된다면, 후자는 인민들의 자발적인 복종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토마스 홉스, 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 나남, 2008, pp.233-234). 서로 다른 두개의 국가주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둘 모두는 현실적이든 잠재적이든 간에 폭력에 의한 인민의 공포와 예속이라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

가는 스스로가 존립하기 위해서 전쟁과 신체훼손을 통해 불구-인간을 만들어내며, 더 나아가 전쟁 이전에 “인간이 불구로서 또 좀비(zombie)로 태어나도록”³³⁾하는 죽음의 장치이다. 그리고 국가의 전쟁이야말로, 이를 실현시켜주는 기제이다. 한국전쟁은 직접적으로 신체적 불구와 죽음을 양산했으며, 더 나아가 모든 인민을 ‘공포’로 몰아넣음으로써 신체를 망각하게 하거나 극도의 수동상태로 만들었다. 『요한시집』에 나타난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경우, 철조망 내부는 포로들의 자발적인 예속을 통해 북한에 포획되는 공간이며, 외부는 남한에 의해서 포획되는 공간이다. 대한민국은 ‘공포’와 그에 따른 인민의 예속/국민화를 바탕으로 생성된 ‘획득국가’인 것이다.³⁴⁾ 따라서 『요한시집』에서 누혜의 특이한 행적과 의미가 다시 중요해진다.

IV. 국민화/예속화에 대한 거부와 누혜의 자살

포로들이 생물학적 ‘생존’을 위해 국가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오히려 자신의 신체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귀결된다. 포로들은 전쟁 수단이 됨으로써, 국가에 반하는 인간에게 무한한 폭력을 휘두르는 ‘살인 기제’가 된다. 그들은 누혜에게 국민화를 강요하지만 누혜는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동료들로부터 극심한 구타를 당하고, 며칠

32) 김항, 『말하는 입과 먹는 입』, 새물결, 2009, pp.95-102.; 김동춘, 앞의 책, p.52.

33)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김재인 역, 『천개의 고원』, 새물결, 2001, 818면.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하는 국가에 의한 포획과 그로 인해 양산된 신체인 좀비에 대해서는 박지웅, 『좀비와 버그』, 『경제학연구』 제54집 3호, 한국경제학회, 2006.9., pp.68-85 참조.

34) 김동춘, 앞의 글, p.83.

후 자살을 한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용감성으로 훈장까지 받아 “인민군의 영웅”으로 불린 누혜가 동료들의 강요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한 살 때에 났다.

나자마자 한 살이고, 이름이 지어진 것은 닷새 후였으니 이 며칠 동안 나의 오직 하나의 故郷인지도 모른다. 世界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가령 이 며칠 사이에 죽었다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을 것이다.

이름이 지어지자 곧 戶籍에 올랐다. 이로서 나는 두터운 호적부의 한 칸에 갇힌 몸이 된 대신, 死亡届라는 법적 수속을 밟지 않고는 소멸될 수 없다는 엄연한 존재가 된 것이다.

네 살에 젖을 버리고 쌀을 먹기로 비롯했다. 이것이 連帶責任을 지게 되는 契約이 되는 것인줄 몰랐고, 또한 말을 너우기 시작했으니 「類化」作用을 본격화 한 셈이다.

아홉 살이 되매 소학교에 들어갔다. 이렇게, 公民社會의 한 分子가 되는 과정을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착착 밟아간 것이다. 학교는 罪의 집이었다. 별에서 罪를 배웠다. 일본 지각했는데 삼십분 동안이나 땅에 손을 잡고 「오토 세이」처럼 엎드리고 있으면 학교는 그만큼 잘 되어가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고 엎드리고 있는 내 앞을 내보다 一〇초가량 앞서 뛰어가던 아이가 싱글벙글 줄 속에 끼어, 「하나 둘 하나 둘」 발을 맞추며 교실로 들어갔다. 그때 나는 六〇초 지각은 지각이지만 五〇초 지각은 지각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³⁵⁾

이 서술은 누혜의 ‘유서’에 쓰인 성장기이다. ‘백성’들이었던 수용소 포로들이 전쟁을 통해 국민화되었다면 지식인인 누혜는 근대국가, 제국의 국민으로써 국가장치의 ‘매트릭스’ 안에서 양육되었다. ‘이름’을 가지는 순간 삶은 ‘사망계’라는 제도 안에 등록됨과 동시에 갇히고 신체는 생명정치 속에

35) 장용학, 앞의 글, pp.75-76.

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그는 학교의 ‘국민교육’을 통해 국민이 되었다. 교육은 “公民社會의 한 分子”를 생산하는 “과정”이며,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장치가 요구하는 인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罪의 집이었다. 별에서 罪를 배웠다”는 진술에서처럼 학교는 주체를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³⁶⁾인 것이다. 개인은 국가장치에 의해 기획된 훈육 시스템 속에 간힘으로써 자율적이고 자발적일 수 있는 신체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불구 내지 좀비로 태어나는 것이다.

삶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제대로 된 교육이라면, 이와 반대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에 의해 국민을 재생산하는 모든 교육은 죽음 또는 예속을 생산한다. 따라서 제국에 의한 식민지 교육 자체가 이미 국가의 폭력이다. 국가의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과 달리 “폭력이 현실로 행사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³⁷⁾보이므로 마치 자연적인 것으로 인식될 뿐이다. 누혜가 태어나서 이름을 얻고 말을 배우고 학교를 다닌 모든 삶 자체는 이미 국가 폭력 내부에서 진행된 것이므로 일반인들에게는 자각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누혜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현기증”(76면)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것이 조작된 것임을 깨달은 때문이다.

그러던 누혜는 식민지의 끝인 “이차대전이 끝”나고 난 후 전신(轉身)을 피하게 된다.

二次大戰이 끝났다.

나는 人民의 벗이 됨으로써 再生하려고 했다. 黨에 들어갔다. 당에 들어가 보니 인민은 거기에 없고 人民의 敵을 죽임으로써 人民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36) 루이 알튀세르, 김동수 역, 『아미앵에서의 주장』, 숲, 1994, pp.98-102.

37)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앞의 글, p.861.

「만들어내는」 것과 「죽이는」 것. 이어지지 않는 이 間隙. 그것은 生의 乖離이기도 하였다. 生은 意識했을 때 꺼져버렸다. 우리는 그 재(灰)를 삶이라고 한다. 우리는 다른 데를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다른 데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善意識에만 善이 있다는 樣式. 이 深淵. 그것은 「一〇秒間」의 間隙이었고, 自由에의 길을 막고 있는 壁이었다. <...>

그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나는 생활의 새 樣式을 찾아냈다.

奴隸. 새로운 自由人을 나는 노예에 보았다. 차라리 노예인 것이 자유스러웠다. 不自由를 自由意思로 받아드리는 이 第三奴隸가 現代의 英雄이라는 認識에 도달하였다. 그 認識은 내 호흡과 꼭 맞았다. 오래간만에 생각해보니 나의 이름이 지어진 이래 처음으로 나는 나의 숨을 쉬었고, 나의 육체는 그 자유의 숨결 속에서 기지개를 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한때의 기만이었다. 흥분에 지나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歷史는 흥분과 냉각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았다. 地動說에 흥분하고 「바스튜」의 破獄에 흥분하고, 「適者生存」에 흥분하고, 「붉은 廣場」에 흥분하고 …… . 늘 그때마다 환멸을 느끼고 했던 것이다.³⁸⁾

광복이 된 이후 누혜는 “인민의 벗이 됨으로써 재생”하기 위해 당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는 당이 표상하는 인민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적을 죽임으로써” 만들어진다는 사실, 즉 국가 폭력의 결과물임을 알게 된다. 이는 국가의 근원적인 작동 방식이다. 그 과정에서 유일하게 남는 것은 국가의 선의식뿐이며, 이에 포획되는 순간 생성으로서의 삶은 불가능해진다. 국가에 예속된 상태에서 “生은 意識했을 때 꺼져버렸”으며, “우리는 그 재(灰)”일 뿐이다. 예속된 삶은 결국 죽어서 사는 삶이며, 그 인민이란 죽어서 살아가는 자인 좀비이다. 그러므로 누혜가 뛰어든 당과 국가의 작동은 그의 자유를 가로막는 또 다른 벽일 뿐이다.

38) 장용학, 앞의 글, pp.78-79.

누혜는 이 ‘자유를 막는 벽’을 깨기 위해서 전쟁에 참가하여 영웅이 되었으며, 그 후 다시 전쟁 포로가 된다. 그 어느 곳에도 자유는 없었다. 그런데 그는 포로가 된 후 노예의 삶에서 역설적으로 자유인의 모습을 발견한다. ‘영웅’조차 노예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었다. 이는 “不自由를 自由意思로 받아드리는 이 第三奴隸가 現代의 英雄이라는 認識에 도달하였다”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3노예는 자발적으로 예속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속 자체를 망각하는 자이다. 이 모습이 바로 동호가 본 누혜의 모습이다.³⁹⁾ 그것은 노예 중의 노예이며, 억압에 의해 타율적으로 예속된 식민지 노예보다 더 지독한 노예이다.

그렇지만 얼마 후 그는 노예가 자유인이라는 자각은 잠시 동안의 기만이었을 뿐 노예 역시 자유의 노예에 불과하며, “自由가 있는 한 人間은 奴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런 점에서 ‘누혜’라는 이름은 단순히 비단을 뿜고 나방이 되어 날아가는 ‘누에’가 아니라, ‘노예’를 함축한다. ‘누혜’를 ‘누에’로 해석하는 것은 그의 현실부정이 현실을 초월하여 ‘승화’하기를 바라는 것, ‘기는 현실’을 벗어나 ‘날기’를 바라는 초월적 욕망으로 읽기 때문이다.⁴⁰⁾ 그러나 그가 추구했던 삶은 현실의 ‘초월’이 아니라,

39) 동호는 수용소에서 본 누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누혜는 모든 현재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다. 천막 내의 잔일은 도맡아 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부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가 모두를 부리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면 서 그가 때로 자기도 모르게 짓는 침통한 표정에 나는 어리둥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장용학, 앞의 글, p.61.

40) 누혜의 죽음을 초월적으로 읽어온 것은 지금까지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 관점이다. 김현, 『에피메니드의 역설』, 『현대한국문학전집 4』, 신구문화사, 1965, p.414.; 박창원, 『장용학소설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pp.45-58.; 최강민, 『한국 전후소설의 폭력성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p.57-58.; 구수경, 『장용학의 단편소설 연구』, 『요한시집』, 『현대의 야』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13호』, 현대문학이론학회 편, 2000, p.48. 이는 장용학의 소설을 우리 소설사에서 익숙한 재현의 관점으로 읽어낸 때문이다. 이상의 평가는 작가가 강력하게 부정했던 소설 이념으로 그

노예인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다. 이는 그가 자유를 죽이려 했던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 노예도 自由人이 아니라 自由의 奴隸였다. 自由가 있는 한 人間은 奴隸여야 했다. 自由도 하나의 數字. 拘束이었고, 強制였다.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었다. 「뒤」의 것이었다!

神 永遠……. 自由에서 빔어져 생긴 이러한 「뒤에서 온 說明」을 가지고 「앞으로 올 生」을 쟁다는 것은 하나의 屠殺이요, 冒瀆이다. 生은 說明이 아니라 權利였다! 迷信이 아니라 意慾이었다! 生을 살리는 오직 하나의 길은 神, 영원…… 自由가 죽은 것이다!

「自由」 그것은 진실로 뒤에 올 그 무슨 「眞者」를 위하여 길을 외치는 預言者, 그 신발끈을 매어주고, 칼에 맞아 길가에 쓰러질 「요한」에 지나지 않았다!⁴¹⁾

누혜는 국가전쟁에서 포로가 되었으며, 포로들에게 또 다시 국가를 강요하는 모든 예측이 “自由에서 빔어져 생긴” 것이라는 인식에 도달한다. ‘자유’는 현실의 부정에서 생겨난 관념이다. 초월적 자유는 실제로 어떠한 외적인 인과율에도, 내적인 결정성에도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언제나 현실 부정적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실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부정하는 허구적인 관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에 대한 믿음은 삶을 신, 영원 등 모든 현실 초월적인 것들(transcendents)과 가치들에 예측시킨다. 이 초월적인 것은 삶을 절단하고 불구로 만든다. 국가 역시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自由에서 빔어져 생긴 이러한 「뒤에서 온 說明」을 가지고 「앞으로 올 生」을 쟁다는 것은 하나의 屠殺이요,

를 재단하는 것이다.

41) 장용학, 앞의 글, p.79.

冒瀆”인 것이다. 따라서 “自由도 하나의 數字. 拘束이었고, 強制”이며, 그런 한에서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인 것이다. 이에 비해 자신의 신체가 지닌 능력을 키우고 펼치는 삶이야말로 ‘권리’이며 ‘의욕’이자 자유가 죽고 난 이후에 도래할 ‘진자’(the real)이다. ‘자유’를 죽인다는 것은 일체의 초월적인 것, 허구적인 것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누혜가 꿈꾸는 세계는 현실을 초월한 유토피아의 몽환적인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삶을 절단하고 불구화시키는 모든 초월적인 것들이 일소된 이후에 도래할 세계로, 만물이 자신의 역량에 따라 그 삶을 펼치는 내재적이고 능동적인 자기 긍정의 세계일뿐이다. 그곳은 초월적인 것들에 의해 잠재화되었던 신체들의 능력을 현실화하는 세계이다. 그러나 초월적 가치들에 예속되어 있는 한, 이러한 세계는 거꾸로 현실 외부의 세계로 비칠 뿐이다.

자유를 죽이고, 초월적인 것을 일소한 이후에 도래할 삶의 세계는 다음과 같다.

이 세계는 二律背反이 없다. 무수의 律이 마치 穹窿의 星座처럼 서로 범함
이 없이, 고요한 詩의 밤을 밝히고 있다. 王者도 없고 奴隸도 여기에는 없다.
憂慮가 없다. 그러니 妥協이 없다. 風習이 없으니 頹廢가 없다. 萬物은 스스로가 자기의 原因이고, 스스로가 자기의 자(尺)이다. 太陽이 반듯이 동쪽에서
만 솟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는 없다. 늘 새롭고 늘 아침이고 늘 봄이다. 아—
젊은 大陸…….42)

누혜는 수용소의 철조망에 목을 매고 자살한다. 그는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예속된 포로들의 ‘미몽’을 부정하면서 ‘탈출’을 시도한 것이

42) 장용학, 위의 글, p.80.

다. 그가 “破壞해야 할 것은 『바스튜』의 監獄이 아니라, 이 섬을 둘러싼 海岸線이다”(80면)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요한시집』에서 철조망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포로들에게 철조망은 국가에 예속되기를 강요하는 포획의 틀이다. 이들은 수용소에서 공포에 의해 다시 국가에 예속됨으로써 자기 신체의 능동성을 망각하고 잔혹한 파괴기계, 국가전쟁의 기관으로 거듭난다. 이는 신체의 정동적 죽음이다.⁴³⁾ 그 결과 이들은 선명한 아/피의 구분을 통해 타자에 대한 파시즘적 무한 폭력을 분출하는 것이다. 포로들의 살기 위한 선택이 거꾸로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망각하는 것(신체망실)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이는 역설이다. 그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미 자살한 누헤의 시신을 훼손하는 그들의 행위이다. 그는 국가에 의한 예속을 부정하고, 삶을 찾으려고 했던 유일한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누헤에게 철조망은 국가라는 노예의 삶 외부를 깨닫게 해 주는 것이다. 그는 포로수용소를 “땅의 끝. 땅의 시작되는 곳. 『은 시간』과 『을 시간』이 이어진 매듭. 발톱으로 설만한 자리도 없”는 “境界”(79면)로 인식한다. 그에게 유일하게 남는 것은 예속의 극한, 만인이 부정한다면 이를 수도 있는 문턱으로써의 철조망이다. 철조망이 ‘경계’인 것은 이 때문이다. 그것은 국가장치의 외부라는 잠재성을 드러내 주는 상징이다. 근대국가의 기원이자 완성인 전쟁 속에서 ‘국민화’ 외부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경계’로써의 철조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철조망의 잠재성이 단순히 양(兩)국가를 가르는 ‘물리적 구분선’으로 폐색될 때, 누헤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좀비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자발적인 죽음뿐이다. 누헤의 죽음은 국가에 의한 예속의 극한/

43) B. 스피노자, 강영계 역, 『에티카』, 서광사, 2003, p.245.

외부를 볼 수 있는, 그렇지만 국민화 기획으로 인해 사라져가는 그 철조망의 존재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그의 자살은 초월적인 ‘비상’도, 절대 자유의 추구도 아니다. 그가 본 것은 국가 표상과 포획의 바깥, 진정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들을 펼쳐내는 삶의 가능성 그 자체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누혜가 다른 어떤 곳도 아닌, ‘철조망’에 목을 맨 이유이다. 그의 자살은 국가 외부라는 사라지는 잠재성, 사라지는 철조망에 ‘산 자의 피’를 칠하여 보이도록 하는 행위이다.

V. 국가외부로 의 지향과 탈주의 모호성

포로수용소의 호모사케르들이 단순히 국적, 즉 국가의 가면을 바꾼다고 해서 예속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속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가면과 함께 얼굴 자체를 뜯어내는 것, 국가-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것뿐이다.⁴⁴⁾ 그 때문에 누혜는 좀비가 되기 전에 스스로의 생명을 끝낸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국가의 예속 자체를 끝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누혜의 죽음은 철조망을 ‘가시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동호가 그의 죽음을 계승하는 한에서 그것은 끝이 아니다. 누혜가 자살로써 드러내려 했던 국민국가 외부, 잠재적으로 실존하는 ‘예속의 외부’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동호에게 이어진다.

누혜가 죽은 후, 동호는 해가 뜰 때까지 누혜의 눈알을 들고 있으라는 다른 포로들의 말을 행하는 과정에서 “철조망은 눈망울에 비쳐는 들었건만” 그것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한다. 이때까지 동호가 본 것은 “눈알을 손

44) 김항, 앞의 책, p.41.

바닥에 들고 서 있어야 했던 안 세계와 감시병이 鄉愁를 노래하고 있었던 밖 세계”(75면)를 물리적으로 구분하던 철조망뿐이었다. 그러던 동호는 누혜의 유서를 읽고 난 이후에야 그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누혜의 시체가 걸렸던 ‘철조망’이 국가 외부를 가리키는 “돌피구”라는 사실도 깨닫게 된 것이다. 누혜의 죽음과 그의 유서를 통해 동호가 얻은 깨달음은 포로수용소에서 본토로 송환되는 동안의 내면이 잘 보여준다.

파도를 헤치고 몸이 본토(本土)의 품으로 안겨들어도, 왜 반가워지는 것이 없었다. 섬에 무엇을 두고 온 것만 같았다.

돌아보니 섬은 포수의 자루(囊)처럼 수평선에 던져져 있었다.

한줌의 평화도 없이 비바람에 흩이고 쪼갠 熔岩의 殘骸. 寒流와 暖流가 부딪쳐서 당구는 現代史의 誤算이 피에 묻혀 맴도는 「카오쓰-」! 아— 그 바위틈에도 봄이 오면 푸른 짙은 움트던가.

「海岸線」을 우는 갈매기의 구슬픈 소리…… 무슨 搖籃이 저 섬이었던가?

무엇이 가까이 오는 발자욱 소리. 안개를 헤치고 새로운 그림자가 가까이 비쳐져야 하는 저 섬! 와도 좋을 때다— 오늘은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피」와 「땀」 이외의 무엇을 흘릴 그것은 저 푸른 하늘같은 살결을 가졌을 것이다. 하늘은 저렇게 가깝다. 그렇게 멀어 보이는 것은 그렇게 가깝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렇게 가까운 存在이다!

그러나 내 손은 좀체로 머리 위에 든 雨傘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어찌랴…….

돌아서니 本土의 重壓은 내 이마 위로 덮어두고 있었다.

自由는 무거움이었다. 설레임이었다. 그것은 다른 섬에의 길이요, 다른 포로수용소에의 門에 지나지 않았다.⁴⁵⁾

동호는 누혜가 죽고 계절이 여섯 번이나 바뀌어서야 본토로 돌아온다.

45) 장용학, 앞의 글, pp.61-62.

이는 휴전과 함께 이루어진 포로송환의 결과이다. 그는 ‘북한 동무’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의용군’이었기 때문에 본국인 남한으로 송환된다. 그런데 동호는 수용소 바깥으로 풀려남으로서 ‘포로’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으나, “몸이 본토(本土)의 품으로 안겨들어도” 반가움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그는 송환의 과정에서 “本土의 重壓”을 느낀다. 송환이라는 “自由는 무거움”이자 “설레임”(소란스러움)이다. 그 까닭은 그가 본토로의 송환이 예측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예측의 연속, “다른 섬에의 길이요, 다른 포로수용소의 門”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에게 자본진영의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른 포로의 선별과 그에 따른 본국 송환이란 ‘포로들의 해방’이 아니라 ‘포로들의 분리수용’에 불과한 것이다. 주권권력의 법-폭력이 여전히 상존하는 한, 이 두 공간은 동일한 포로수용소이며, 그런 한에서 그는 여전히 포로인 것이다.

동호는 자신이 겪은 수용소의 현실을 “寒流와 暖流가 부딪쳐서 뒹구는 現代史의 誤算이 피에 묻혀 맴도는 카오쓰”이자 극한으로 보았다. 그 가운데 그는 극한의 현실을 탈구시킬 수 있는 ‘문턱’⁴⁶⁾으로서의 사건(“그것”)이 도래할 것을 예감한다. 작품 속 사건의 맥락상 동호가 예감하고 기대하는 ‘그것’이란 국가 폭력과 예측에서 벗어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는 어떠한 초월적 전망에 의해서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동호는 “그것”이라 지칭한 것이다. 이는 오직 예측의 문턱을 넘어서 ‘현시’될 때에만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래할 ‘그것’을 “그렇게 가까운 存在”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초월적인 것의 작용이 아니라, 현실 속에 내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46) ‘극한 내지 한계’는 다시 시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마지막의 바로 앞의 것’이라면, ‘문턱’은 불가피한 변경을 가리키는 ‘마지막 것’을 의미한다.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앞의 책, p.842 참조.

그렇다면 그 문턱은 어떻게 도래하는가? 다시 말해 국가의 예측을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오직 국가에게 빼앗겼던 ‘전쟁권’을 되찾아서 전쟁기계⁴⁷⁾를 구성하고, 국가와의 전쟁을 통해 국가를 소멸시킴으로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예측/주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주체란 예측화로 형성되었으며, 우리의 신체를 오직 대주체의 호출에만 반응하도록 불구화한 것이기 때문이다.⁴⁸⁾

이에 비해 동호는 국민, 혹은 ‘주체’가 아니라, 분열증적 신체를 가지고 있다. 그는 “남이 당하는 고통도 내 신경을 에여내는” 것처럼 느끼고, 나무에서 벌레가 떨어지는 것에도 “내가 그렇게 떨어지는 것만 같”(61면)이 아파한다. 그 때문에 그는 포로수용소에서 동료들에게 ‘반편’ 취급을 당하며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동호는 이러한 자신의 상태가 “정상적인 것”이며, 오히려 보통 이상의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신체야말로 “신경이 마비된 탓이고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신체는 인간/자연의 구분조차 없이 사소한 ‘벌레’의 아픔마저도 공감각한다. 이는 어떠한 목적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에 연결 접속하는 예민한 신체이기 때문이다.⁴⁹⁾ 그가 누혜의 어머니를 통해 ‘본토’에서의 인간의 삶을 확인하고, 죽음을 공감하는 것도 이러한 신체 덕분이다.

그것은 사람이기는 하였다. 살아 있는 것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過去形에 지나지 않았다. 과거에 죽은 사실이 없으니까 지금도 살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표가 거기에 찍혀있는데 지나지 않았다.⁵⁰⁾

47) 전쟁기계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국가의 속박을 부정하면서 포획장치에서 벗어나 ‘창조적 도주선’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언제나 국가와 대립하는 구성체이다.

48) 대주체의 호출과 주체의 화답에 관해서는 루이 알튀세르, 앞의 책, pp.115-130 참조.

49)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김명관 역, 『앙띠오이디푸스』, 민음사, 2001, pp.18-19.

동호가 만난 그녀의 모습은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삶, 단지 ‘죽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무젤만’⁵¹⁾이다. 이는 좀비 중에도 최하층의 좀비, 기능이 상실되어 언제든지 배제의 위협에 처해진 좀비일 뿐이다. 그녀는 중풍에 걸려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지 못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고양이와 잡아다 주는 쥐로 연명해 온 것이다.

유일한 벗의 어머니인 그녀를 만난 동호의 감정은 너무나 복잡하다. 중풍에 걸려 운신을 하지 못하는 그녀가 자신을 찾아 온 이가 아들이 아님을 알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그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러나 동호는 그녀가 쥐를 잡아먹으려는 몸짓에 경악하면서 그녀에게서 쥐를 빼앗아버린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목숨을 연명하려는 그녀의 모습에서 ‘살의(殺意)’와 “구역과 분노”(65면)를 동시에 느낀다. 그러한 느낌은 곧바로 ‘변소에 던져진 누혜의 손’과 겹치면서 그는 “분한 눈물”을 흘리고, 그녀의 모습에서 서러움을 느낀다. 이러한 동호의 반응은 주체 이전, 혹은 주체를 벗어난 신체들의 공명이자 ‘감응’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호는 죽어가는 그녀의 손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한다.

① 등껍이 시려진다. 노파의 식은 피가 손구락으로 해서 내 혈관으로 흘러 드는 것이다. 노파의 얼굴에 떠오르는 생기를 보아라. 냉기는 내 팔을 얼어붙이고 있지 않은가. 위로 위로…….

사실은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왜 내 육체가 이런

50) 장용학, 앞의 글, p.63.

51) ‘무젤만Muselmann’은 아감벤이 헤에르 레비의 말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것의 어의(語義)는 ‘하느님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는 자’인 ‘이슬람교도’이다. 그러나 이 말은 아우슈비츠에 갇힌 수감자 가운데 죽음의 극한에 이른 자들을 지칭하는 데 쓰였다. 이는 ‘모든 의지와 의식을 상실한 자’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조르조 아감벤, 정문영 역,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새물결, 2012, p.67.

게 자꾸 차가워지는가? 구리(銅) 같아지는 내 손의 차가움……과 팔. 어깨를 지나 가슴으로……. 穴居地帶로 穴居地帶로, 나는, 자꾸 靑銅時代로 끌려드는 鄉愁를 느낀다. <…>

내 가슴을 그슬려버린 죽음의 고동은 귓속에까지 비쳐든다. 귀안에서 죽음이 운다. 막 우는 진동에 눈동자가 초점을 잃어버린다. 환영(幻影)이 비쳐든다.

② 나무 가지를 타고 침입해 들어오는 猿人. 아직 쭉 펴지 못하는 허리에 차고 있는 것은 또 그 돌도끼이고 손에는 횃불이다. 그가 배운 재주는 그것밖에 없다는 말인가.

저 망측스런 것들이 이제 좀 있으면 『뽀너쓰』를 찾고 그 앞에 祭壇을 세운다. 呪文을 몇 번 뇌까리면 땅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自我가 눈을 뜬다. 그 눈가에 工場이 서고, 그 연기 속에서 二층 건물이 탄생한다. 그 共和國은 만세를 부르는 市民들에게 自由를 보장하는 鑑札을 나누어준다.

바깥 세계에서는 눈이 시름없이 내리고 있는데, 이런 歷史는 그만하고 그쳤으면 좋겠다.⁵²⁾

①은 동호가 누헤 어머니의 손에 잡혀 죽음을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는 그녀의 신체를 통해서 죽음에 이른다. 그러다가 그녀가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손을 놓자 가까스로 거기서 벗어난다. 죽음의 감각은 여전히 그의 몸에 남아서 그를 환영으로 이끈다. 그 환영이야말로 죽음을 통해 변용된 동호의 신체가 지각하는 어떠한 형상이다. 환영 속에서 몰려온 돼지들은 인간의 모든 도시를 폐허로 만들고, 수많은 나무들이 무작위로 몰려와 자리를 차지하자 낙원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②에서처럼 다시 원인(猿人)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또 다시 자아를 각성하고, 국가를 세운다. 그런데, 동

52) 장용학, 앞의 글, ① pp.66~67, ② p.68.

호는 “이런 歷史는 그만하고 그쳤으면 좋겠다.”고 느낀다. 결국 동호가 누혜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감응한 것은 인류사 전체이다. 그것이 ‘죽음’의 정동과 함께 동호의 신체에서 포착된 것이란 점에서 현재의 인류사 전체가 곧 죽음의 역사인 것이다.

그런데 이미 언급했듯이 국가의 예속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가가 독점한 전쟁을 되찾는 것, 그리하여 국가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하지만 『요한시집』에서 동호는 여전히 누혜의 시선 속에서 방황한다. 그는 누혜의 시선을 계승함에도 불구하고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작품은 “과연 내일 아침에 해는 동산에 떠오를 것인가…….”(82면)라는 그의 내적 진술로 끝난다. 동호는 현실의 탈출구를 찾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한 채, 모호한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VI. 결론을 대신하며

이상으로 장용학의 『요한시집』을 살펴보았다. 먼저 그는 ‘토끼 이야기’에서 간혀 있던 토끼가 동굴을 탈출하지만 공포 때문에 동굴 앞을 떠나지 못한 이야기와, 그 토끼를 경배하는 다른 모든 동물들의 이야기를 보여준다. 이는 신화적이고 종교적 구속에서 벗어났으면서도 여전히 예속되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유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요한시집』의 토끼이야기는 본 서사가 펼쳐지는 전제 내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본 서사에서는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갇힌 북한군 포로들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들은 국가의 예외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피지배자인 ‘백성’으로서 국가의 전쟁에 강제로 동원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포로들은 남한의 폭력과 공포를 피하기

위하여 다시 북한의 국민이 된다. 그 결과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또다시 이념을 앞세운 살육의 전장이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은 살기 위해 ‘국민’이 되지만, 역설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망각하고 타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살인기계가 되고 만다. 장용학은 『요한시집』에서 ‘거제도포로수용소’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국가-전쟁인 한국전쟁 자체가 이미 폭력을 통한 인간의 예속임을 보여준다. 국가의 전쟁은 복종하지 않는 인간들을 살육하고, 살아남은 자들을 공포로 예속시켜 ‘국민화’함으로써 이들의 신체를 포획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장치가 존재하는 한, ‘국민’은 국가 속에 갇힌 ‘포로’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누혜는 국가의 외부가 잠재적으로 실재한다는 것을 철조망에 목을 매는 행위를 통해 보여준다. 그리고 동호는 누혜의 시각을 고스란히 물려받고 포로수용소에서 풀려난다. 동호는 본토 역시 또 다른 섬, 또 다른 포로수용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또 다른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극단적인 인간의 형상이 바로 쥐를 잡아먹고 연명하는 누혜의 어머니이다.

장용학은 누혜와 동호를 통해 국가의 외부가 잠재적으로 실재하며, 국가의 예속을 벗어나야만 진정한 삶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요한시집』에서는 국가에 포획된 인간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로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 까닭은 작가의 계획과 달리 이 작품이 미완성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요한시집』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 할 수는 없는데, 국가장치의 폭력에 의해 모든 국민은 이미 포로임을 알고 있는 동호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요한시집』의 모호성은 예외상태가 상례가 되어 침묵을 강요하는 한국 사회의 조건 때문이다. 당대의 현실에서 작품을 발표(발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외부의 사유는 은폐되어야 했거나, 표현 불가능했기 때문이

다.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서 거의 모든 지성이 ‘민족 근대화’에 공명했다. 정치적 이념이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근대국가 자체를 부정할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런 한에서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포획장치인 근대국가의 성립은 우리 역사에서 당위성을 얻는다. 하지만 장용학은 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근대 민족/국민국가의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장용학, 『요한시집(詩集)』, 『현대문학』, 1955.7.
 ———, 『感傷的 發言』, 『문학예술』, 1956.9.
 ———, 『實存과 『요한詩集』』, 『세계전후문학전집 1』, 신구문화사, 1969.

2. 논문 및 단행본

- 장준만, 『한국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1권』, 인물과 사상사, 2009, pp.25-26, pp.215-218.
 구수경, 『장용학의 단편소설 연구; 『요한시집』 『현대의 아』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13호』, 현대문학이론학회 편, 2000. p.48.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p.210.
 김동석, 『경계의 와해와 분열 의식』, 『어문논집 47권』, 민족어문학회 편, 2003. pp.200-201.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pp.19-21, pp.135-136.
 김윤식, 『우화성과 이데올로기 비판』, 『문예중앙』, 1981. 봄(『장용학전집7』, 국학자료원, 2002, pp.72-73).
 김학재, 『진압과 석방의 정치』, 『제노사이드 연구』 제5호,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편, 2009, pp.55-64.
 ———, 『전쟁포로들의 저항과 반공오리엔탈리즘』, 『사림』 제36호, 수선사학회 편, 2010, pp.158-171.
 김 향, 『말하는 입과 먹는 입』, 새물결, 2009, pp.95-102.
 김 현, 『에피메니드의 역설』, 『현대한국문학전집 4』, 신구문화사, 1965, p.414.
 박지웅, 『좀비와 버그』, 『경제학연구』 제54집 3호, 한국경제학회, 2006.9. pp.68-85.
 박찬승, 『마을로 간 한국전쟁』, 돌베개, 2010.
 박창원, 『장용학소설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pp.45-58.
 염무웅, 『실존과 자유』, 『현대한국문학전집4』, 신구문화사, 1965. p.429.
 전갑생, 『최초 발굴: 거제도포로수용소의 숨겨진 진실』, 『민족21』 제108권, (주)민족21 편, 2010, pp.161-166.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pp.182-189.

최강민, 『한국 전후소설의 폭력성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p.57-58.

B. 스피노자, 강영계 역, 『에티카』, 서광사, 2003, p.245.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역,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p.181.

_____, 정문영 역,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새물결, 2012, p.67.

질 들뢰즈, 펠릭스 가타리, 김명관 역, 『앙띠오이디푸스』, 민음사, 2001, pp.18-19.

_____, _____, 김재인 역, 『천개의 고원』, 새물결, 2001, p.818, p.842, p.861.

존 로크, 강정인, 문지영 역, 『통치론』, 까치, 1996, pp.24-25, p.93.

루이 알튀세르, 김동수 역, 『아미앵에서의 주장』, 솔, 1994, pp.98-102, pp.115-130.

미셸 푸코, 박정자 역,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동문선, 1998. p.34.

토마스 홉스, 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 나남, 2008. pp.233-234.

Abstract

The Rejection of nationalization through the Korean war and
Orientation toward the outside of the state

Ryu, Hee-Sik

This article aims to study the rejection of nationalization and orientation toward the outside of the state in *St. John's Poetic Collection* written by Jang, Young-Hak. In the work, Jang tries to betray that South and North Koreans were 'nationalized' during the Korean war through the subordination of people by horror of war. The state has conducted war not to protect its people, but to capture and subjugate them. That's why Jang regards entire South Korea as another POW camp. In the work, POW camp on Geoje island is represented not merely as an exceptional space for keeping prisoners of war, but rather a kind of an arrangement that reveals the general function of modern states which is capturing and subjugating of people through war. As long as modern states exist and war keeps on, there cannot be a way for entire people to avoid prisoners of war.

With the realization, in *St. John's Poetic Collection*, the protagonist Nuhye committed a suicide on the fence of the barbed wire entanglement in the concentration camp. After the death, Dong-ho detected the possibility that the outside of the state, the exterior of the camp potentially can exist. However, Dong-ho, regrettably, wouldn't take specific actions to go beyond the territory of nation. Nevertheless, it can be identified that Jang aims to extricates literary orientation in his work from the framework of nation/state distinction, one of the modern institutional dimensions.

Key Word : Jang, Yong-Hak, *St. John's Poetic Collection*, POW camp, antinationalization, antinationalism, the outside of the state.

류희식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 (706-813)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서한화성타운 106동 502호

전화번호 : 010-2285-3476

전자우편 : ivy-01@hanmail.net

이 논문은 2014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4년 11월 2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3일 게재 확정됨.
--